

중한우호의 전기인물

한성호

김수영 저

中韩友好的传奇人物



충청남도립도서관

중한우호의 전기인물

한성호

김수영 저



홍릉강
조선민족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韩友好的传奇人物韩晟昊: 朝鲜文 / 金秀永著. —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6
ISBN 978-7-5389-1411-5

I. 中… II. 金… III. 传记文学—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072745 号

书 名/ 中韩友好的传奇人物韩晟昊
著 者/ 金秀永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金斗弼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龙震海
印 刷/ 长春第二新华印刷有限责任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27.5
字 数/ 400 千字
版 次/ 2007 年 7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7 月第 1 次印刷
印 数/ 1—2 000 册
书 号/ ISBN 978-7-5389-1411-5 (民文)
定 价/ 48.00 元



西紀1993年2月 韓殷吳博士佩戴大韓民國冬柏國民勳章照相

1993년 2월, 대한민국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한성호박사



西紀2002年7月，在北京人民大會堂會見聯華中國和平統一促進聯合總會會長韓慶棠（左），
中共中央總書記胡錦濤（中），全國僑聯主席林武福（右）

2002년 7월, 인민대회당에서 국가주석 호금도, 전국교련주석
림조추가 한성호박사를 회견하였다.



西紀2001年5月26日，左后：駐韓中國大使館 武大偉大使，左前：聯華中國和平統一促進聯合總會長 韓慶棠
博士，中：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委員會 李 鵬，右：李鵬委員長夫人 宋 琳女士

2001년 5월 26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전국인대 위원장
리붕과 그의 부인 주립녀사가 한성호박사를 회견하였다.



西紀2000年10月22日, 在韓國濟州島新羅大飯店 中國國務總理 朱鎔基(右)
和韓華中國和平統一促進聯合總會會長 韓滌吳(左)

2000년 10월 22일, 한국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국무원 총리 주용기가 한성호박사를 회견하였다.



西紀1999年5月11日, 在韓國左: 韓滌吳總會長, 右: 李瑞環政協主席

1999년 5월 11일, 한국에서 전국 정협주석 리서환이
한성호박사를 회견하였다.



西紀1987年4月。受盧大統領之托。進行中韓建交密使時在山東。左：韓僑民總會長 右：山東省長姜春雲

1987년 4월, 한국 로태우대통령의 밀사로 산둥성을 방문하여
강춘운성장과 회담하고있는 한성호박사



2006년 3월 15일, 한국 신동화환의원에서 한성호박사,
리다복녀사와 자리를 같이한 길림신문사장백산잡지사 남영권사장,
한국주재 길림신문사 허정옥지사장, 본서저자 김수명편심.



2007년 8월 31일, 한성호박사(오른쪽 두번째)가 길림성해외교류협회
해외 명예회장을 런임.



2007년 9월 2일, 길림성정협 전임주석 장악기(중간)와 길림성사회과
학원 부원장, 심위선전부 부부장 장복유(왼쪽)와 함께,



2007년 9월 3일, 길림성로동빛사회보장청 부청장, 《길림신문》
《장백산》발전연구회 회장 신봉철과 함께,



2007년 9월 2일, 한성호박사와 부인 리다복녀사가 길림신문사와
장백산잡지사 방문.



西記1987年1月 于韓國大統領官邸 左 韓國總統 盧泰愚夫人金玉淑 中 盧泰愚大統領 右 韓晟吳博士

1987년 3월, 청와대에서 로테우대통령, 김옥숙녀사와 함께 있는 한성호박사



韓國總統金泳三 (左) 與韓晟吳博士 (右)

김영삼대통령과 함께 있는 한성호박사



西紀1996年12月 左 韓晨星博士 右 大韓民國大統領 金大中

1996년 12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있는 한성호박사



西紀1996年12月19日 左 前韓國國務總理 現自由聯盟主席金鐘泌 右 韓晨星博士

1996년 12월 19일, 김종필자민련총재와 함께 있는 한성호박사



西紀1992年2月10日, 漢城市政府頒發大韓民國國旗勳章 右, 李相培市長, 左, 韓歷吳總會長

1992년 2월 19일, 리상배서울시장의 한성호박사에게
대한민국국민훈장을 전달



西紀1997年10월1日, 新韓國道德運動本部總裁金汶河頒給韓晟吳總會長名譽總裁證書

1997년 10월 1일, 신한국도덕운동본부 김문하총재가
한성호박사에게 명예총재증서 수여



西紀1955年10月 駐臺灣總統府 中 蔣介石 左 韓國國大代表王興西 右 韓晟吳博士

1955년 10월, 중국 대만 《총통부》에서 장개석의 집견을 받고있는 한성호박사



한성호박사와 부인 리다복녀사, 딸 지은이

일월석의 인생

—머리말을 대신하여

남영진

중한수교의 대업을 위해 로태우대통령의 밀사로 혁혁한 공훈을 세운 화교 한성호박사. 그는 소설이나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보다 더 전기적이고 더 신화적인 인물이다.

오곡을 먹고 사는 한 보통사람이 어찌면 《기인, 기재, 기자, 기적(奇人,奇才, 奇志, 奇績)》이라 불리울가. 나는 2006년 3월, 한성호박사를 알게 된 다음부터 줄곧 그에 대해 경탄에 경탄을 거듭했다.

한성호박사의 인생은 너무나 극절적이고 너무나 파탄만장하다. 그는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온분이다. 생과 사는 늘쌍 그의 삶에 뒤영켜 수시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겨야 했다. 중국의 고전문학 《서유기》의 당승이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구구팔십일의 생사의 재난을 겪듯이 한성호박사의 인생길에도 생사의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이 쌓은 공덕이 그를 구했다. 귀인이 나타나 그를 도왔다. 하늘이 굽어보고 그를 도왔다. 그는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불사조이다.

한성호박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분이다. 그의 기억력은 비상하다. 한번 들은 말은 잊지 않고 한번 펼쳐본 책은 머리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는 소년시기부터 고금동서의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하였고 《주역》, 《하락수》를 통달하였다. 30세를 갓 넘어서는 한 화교소학교 교장직의 바쁜 와중에도 3개월만에 그 두터운 《본초강목》을 약처방 하나 빠뜨리지 않고 줄줄 외워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박정희대통령시대에던 45세때부터 청와대를 드나드는 《어외》가 되었고 2년동안 120만자로 된 5권의 《식품비방》을 펴내어 한국을 들썩하게

하였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참된 인생관을 두날개로 만리창공을 나는 매가 되
여 그 예리한 혜안으로 세상만사를 굽어보고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자유혼
이다.

한성호박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바른말을 하고 불의와 사악에 타협을 모르
는 초인간적인 투사이다. 그의 인생신조는 효이다. 효에 대해 그는 세가지 준칙
이 있다—부모에 대한 효는 소효요, 민족에 대한 효는 중효요, 인류에 대한 효는
대효다. 때문에 조상을 팔아먹는 불효, 민족을 분열시키는 불효, 인류에 피해를
주는 불효에 대해서는 법과 같이 증오하고 사자마냥 포효한다. 이때문에 항상
불의의 비방을 당하고 사악의 음모와 피해를 면치 못하지만 그는 바다같은 흉금
으로 태면하기만 하다. 모든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파풍이 울리면 오라 하고
소나기가 퍼부으려면 퍼부어라 한다. 태산에 우뚝 솟은 소나무는 끄떡하지 않는
다. 오직 숨이 붙어 있는 한, 오직 필을 늘릴수 있는 한, 정의를 위해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황소마냥 끈질기게 어제도 오늘도 자기가 갈길을 가고있다.

한성호박사의 자비심은 보통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이다. 선천적으로
마음이 선한 그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여 남에게 베푸는것
을 그의 도리이고 인생의 락으로 여긴다. 그도 배고픔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
왔기때문에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이 불쌍히 여겨 여러차례 기부금을 내었
고 많을 때는 열몇명 고아의 생활비용을 전담하였다. 돈이 없어 병치료를 못하
는 환자를 보면 무료로 병을 봐주고 약까지 공급해준다. 심성이 올바르지 못한
몇몇 인간들이 그에게 무례하게 사기를 친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한번은 한 화
교가 그더러 경제담보물 해달라는 청탁이 있어 그가 선뜻 대답을 했었다. 경제
담보수속이 끝나 며칠이 안되어 그 사람은 회사파산(부도)을 선포했다. 한성호
박사는 한화 2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안게 되어 하마트면 가산을 탕진할
번 했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이다음엔 속심을 차리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는 이
런 말을 한다. 《그들이 찾아온걸 보면 가련한데 어찌 내 모른다 하겠는가? 사
람이 돈만을 위해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네.》 그는 심지어 자기에게 경제폐
해를 가져다 준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뻗었을 때 또 그를 도와준적도 있다.

한성호박사는 인류애의 흉금이 바다같이 넓은분이다. 그가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그의 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20세기 60년대 초반부터 한성호

박사는 수석을 채집하기 위해 한국의 명산대천을 돌면서 종종 가슴아픈 일을 목격했다. 그토록 아름다운 무궁화가 소우리나 돼지우리 옆에 아무렇게나 피고있었고 길옆에 흑간 눈에 띄우는 무궁화는 홀로 서있는것이 처량하였다. 공원을 가도 무궁화 화원은 찾아볼수 없었고 사람들의 손길이 안닿는 곳에 한두그루 보이는것이 그 당시 한국의 실상이었다. 36년간 일제의 강점을 당했고 숨돌릴 사이 없이 또 조선전쟁을 겪고난 한국국민들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허리를 꼴끗이 펴지 못했었다. 한 나라의 국기, 국가, 국화는 그 나라의 상징이다. 한 국민이 어찌 자기 나라의 국화를 행대할수 있으랴. 자신은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한국에 건너와 이미 10여년을 산 사람이다. 이 나라의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나오는 오곡을 먹으며 이곳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어 한국은 그의 두번째 고향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한국국민들에게 무궁화를 사랑하자고 호소하고싶었다. 그는 한차례 또 한차례 진정어린 글을 신문사에 보냈지만 어느 신문사도 그의 글을 채납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자기 한의원의 비닐약가방에 본래 인삼과 록용의 도안이 찍혀있었는데 이 도안을 한송이 아름다운 무궁화로 바꾸었고 《우리 나라 꽃 사랑합시다》란 열글자를 큼직하게 새겨넣었다. 그 당시 한국에는 비닐에 칼라인쇄를 하지 못했기에 그는 항항에서 이 약가방을 인쇄해 왔었다. 그때가 바로 1962년, 장장 45년동안 한성호박사의 한의원에서 나간 무궁화 약가방은 100만개가 넘는다. 서울에서 한국 각지로 피어난 이 백만개의 무궁화, 한국인에게 감동을 주는데 충분했고 또한 한국인의 부끄러움을 자아내는데 충분했다. 그래서 후에는 한국의 문화인들의 무궁화를 사랑하자는 글들이 간행물에 발표되었고 《무궁화사랑》단체도 나오게 되었다.

한성호박사는 자연과 호흡을 같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분이다.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도박장에 가지 않으며 노래방과 무도장을 외면하고 골프를 치지 않는다. 그의 애호라면 오로지 대자연와의 교류를 즐기고 수석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대자연의 천대만상과 수석의 신비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만고창상을 겪어온 돌의 의연히 굳세고 부서질망정 꺾이지 않는 품격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는 오랜 세월 일요일마다 좋은 강과 바다가를 찾아다니면서 수석을 수집해왔다. 그의 집과 그의 한의원은 온통 기묘한 수석의 천지로 되어 그는 늘쌍 세상의 정기를 한풍에 안고 산다.

한성호박사는 기묘한 일월석과 인생을 같이하는분이다. 1960년 늦가을, 어느 한 해변가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그를 기다린 이 한쌍의 일월석은 그와 회로 애락을 같이하는 생명의 동반자이다. 호두만한 크기에 유난히 반질반질한 이 한쌍의 일월석, 하나는 해의 도안, 다른 하나는 달의 도안이 생생해 볼수록 신기한 돌이다. 일월석을 한손에서 리듬에 맞추어 돌돌 굴리면 특유의 소리가 난다. 한성호박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쌍 일월석을 만지며 그와 대화를 한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마다 일월석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일월석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난적이 없다.

한성호박사와 기묘한 일월석과의 인연은 또 있다. 그가 일월석과 동반한 32년 후인 1992년 10월의 일이다. 그가 어릴적에 관상을 잘 보는 삼촌이 그의 앞날을 예측하면서 그에게 세가지 조언을 했었다.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학교를 꾸리라, 둘째는 죽은 사람을 위해 묘지를 사주라, 셋째는 인생의 정화를 위해 절을 지어라. 그는 언제나 삼촌의 세가지 조언을 명심하였다. 오랜 세월 앞의 두가지 일은 결실을 보았지만 절짓는 일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던중 어느 하루 두 친구와 설악산가을단풍구경을 갔다가 우연하게 한 계곡의 평지에서 풍수지리가 뛰어난 절터자리를 발견하고 기쁨을 금치 못했었다. 공사가 시작된후 그는 중국 천진에서 주문한 한촌의 3에터높이의 한백옥여래불상과 2백존 작은 불상을 한국에 모셔왔다. 절간자리를 개토해야 하는 전날밤에 한백옥여래불이 세번이나 꿈에 나타나 그는 번마다 꿈에서 놀라 깨어났다. 여래불은 이런 말을 하였다. 《자네의 절터는 일월신이 오랜 세월 은신한 곳이야.》 《일월신은 오래지 않아 현세할것이니 그들을 잘 모시오.》 꿈이 너무도 신기하여 그는 아침 일찍 서울에서 강원도 설악산으로 달렸다. 그가 현장에 이르렀을 때 굴착기가 판 구멍이에서 큰 돌덩이 두개가 나타났다. 하나는 둥그런 해와 같았고 하나는 납작한 달과 같았다. 두 돌사이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다. 참으로 신기했다. 이곳은 두 산사이의 평지로 작은 돌 하나 찾아볼수 없는 일석의 황토인데 난데없이 이런 기묘한 돌들이 나타났다것은 천지의 뜻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한성호박사의 일월석의 이야기는 또 이것으로 끝난것이 아니다. 7년후인 1999년 12월 31일 심야 산동태산남천문호텔에서의 일이다. 한성호박사는 산동성정부의 초청으로 새천년맞이 태산일출관람을 위해 이날 저녁 태산에 올랐다.

4 중한우호의 전기인물 한성호